

(주) 새한산업

- 방사성동위원소 업계의 선두주자 -

23년 동안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방사성 동위원소 업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새한산업주식회사.

영동의 울창한 빌딩숲사이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사옥에 들어서보니 복잡한 도시의 소음공해와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과 활기찬 직원들의 모습속에는 외길로써 첨단 의학과 산업발전에 공헌해온 보람이 가슴속 깊게 자리잡은듯 했다.

1967년에 창립되어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23년의 세월.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시작하여 강남의 중심지로 이전하여오며 “이제 시작”이라는 다짐속에 새로운 출발 만을 고집하는 김철중사장을 비롯, 전직원의 눈빛은 신념과 긍지에 가득차 있었다고 할까?

긴 세월이 이야기하듯 초창기 방사성동위원소 업계의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창업자인 김철중사장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초창기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여 통관하는데 무엇보다도 방사성동위원소 자체가 위험물질인데다 반감기에 따른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처음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할 당시는 일반 물품처럼 통관규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방사선 선량에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고 하며, 병원에 제때 공급을 못하고 응급환자의 진단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와 했던 점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보호자 못지 않았다고 한다.

방사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각종 핵물리 장비, 방사선 방어장비등의 보급을 통해 병원 및 연구소, 각 산업체등의 산업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담당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7년에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는 새한산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미나 및 전시회와 외국 전문 인력을 초청, 매년 정기적으로 전사원의 연수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국제 신기술의 국내 산업화보급 및 의학계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수출부와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불란서 등과의 연줄을 굳게 맺고 있는 무역부, 국내업무부의 활발한 활동 속에 국내의 동위원소 보급을 80%라는 막대한 시장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생산 RI를 보급하는 선두주자라 자부하며,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란 신념속에 기술로써 봉사와 연구에 노력하는 기술부 등 잘 물려 돌아가는 튼튼바퀴를 연상하게 하였다.

탁구대를 비롯한 운동시설들, 옥상의 도심속의 전원공간이라 할 수 있는 화단과 휴게실, 산악회, 낚시회 등은 직원들의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즉시 풀어 정서가 매말라 가는 우리사회에 인정의 꽃을 피우는 단비가 되는 참모습을 보는 듯 하였다.

70년대말 유네스코 등록업체로 지정되었던 새한산업(주).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네스코 이념의 참뜻을 잊지 않은듯 전 직원이 일치 단결, 한마음되어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 '89년 전사원 연수교육을 마치고.

